

참선 전문 템플스테이 상설화

범어사, 매주 토~일요일 '간화선의 모든것' 지도

5월부터, 30명 신청받아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허두 드는 법을 알고 싶어요."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본사가 함께 열고 있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 사이에서 쏠아지고 있는 질문들이다. 참선을 막 시작하려는 초심자, 혹은 오랫동안

동안 참선을 해왔더라도 공부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의문점 해결에 선철대본산 범어사가 적극 나서 선(禪)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참선 템플스테이는 기존 불교문화 체험 템플스테이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참선 실수를 위주로 매주 토·일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참선 템플스테이는 설선대법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간화선의 대중화와 간화선 생활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범어사는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템플스테이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존 불교문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선 실수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이를 통해 참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과 참선 후 소감문 등을 통해 참선 경험자들의 느낌과 생각들을 참조해 프로그램 구

자기 점검의 장 마련 '선 문화센터' 조성도

성을 마쳤다. 범어사 참선 템플스테이의 주안점은 실질적인 참선 실수와 점검에 있다. 참선을 직접 해보고 참선 이후 자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묻고 답하는 장을 활짝 열어 놓을 예정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참선 후 일어난 경험에 대한 의문' 등 직접 참선을 해본 이들이 묻고 싶은 것을 물을 수 있는 장을 연다는 것이다. 좌선에 국한되지 않고 좌선, 행선, 생활선 등 참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의 참선이 이어

지고, 점검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템플스테이를 만들겠다는 것이 범어사의 각오다. 연령에 제한 없이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주말 참선 템플스테이는 사찰 예절 배우기, 사찰 안내, 발우공양, 저녁에 불 및 108배 참회, 불무도, 참선 강의 및 질문, 참선 실수, 새벽 숲길걷기(행선), 율령, 고당봉 산행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범어사의 참선 템플스테이는 범어사 추진하고 있는 '선(禪) 문화센터' 조성 과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선철대본산의 위상에 걸맞은 '선 문화센터' 조성으로 한국 선 불교를 국내는 물론 세계 속으로 알리는 학술대회, 참선 공간 재배치, 행선을 위한 보행로 확보 등이 마무리되면 참선 템플스테이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어사는 참선 템플스테이 외에도 불교문화 체험 템플스테이,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가족 참여 템플스테이, 부부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묵언 템플스테이 등을 다양하게 기획 실시하면서 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갈 예정이다.

참선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연수국장 해수 스님은 "참선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선이 어렵다는 오해를 말끔히 없애고 한국 선 불교의 진수를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널리 알리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1)508-3125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적 달라도 '감동'은 하나

국제한국학 수강 외국인 청계사에서 사찰 체험

"홀름-함-나-다!" 4월 8일 오후 경기 의왕 청계사.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국제한국학 강좌를 수강하는 내외국인 학생 8명은 사찰체험을 한 뒤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들 중 5명은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불가리아, 한국계 미국교포이고 나머지 3명은 한국인. 한국인 가운데에는 모 대학의 영문과 교수도 포함돼 있다. 비록 4-5시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들이 사찰체험을 하게 된 것은 국제한국학 강의를 맡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 덕분. 국제한국학 강좌에서 한국사상을 강의하고 있는 한 교수는 한국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들은 청계사에서 참선 지도를 받고 불교사상 및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을 마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며칠 동안 사찰에서 지내며 불교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형조 교수는 "불교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산사체험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후원자가 나선다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사찰체험 참가자들이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으로부터 불교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호신마을 중창위한 바자회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는 4월 10일 영조(송광사 주지), 지각 스님(동구불교사암연합회) 등 사암스님과 지역기관장, 주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망 및 호신마을 중창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은 "어려운 이웃이 없는 사바세계를 위해 다함께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며 "인간불사를 위해 작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각사 경내에서 열린 이날 바자회는 전통차, 불교음식, 불교용품 판매와 도산 스님 휘호전시회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신라문화원 총담재 개최

신라 경덕왕 당시의 고승이며 향가 '안민가'와 '찬가파랑가'로 유명한 총담스님을 기리는 총담재가 4월 10일 경주 안압지에서 열렸다. (사신라문화원과 경주문화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육법공양, 추모사, 축사, 헌다, 총담스님과 향가이야기, 문학, 헌무, 헌화, 헌향, 다례 시연 등의 추모제와 풍물제, 니르바나, 서라벌 국악실내악단, 쌍계제사의 시연 및 공연으로 진행됐다. 앞서 남산 삼화령에서 총담 스님께 차 공양을 올리는 차례도 열렸다.

배자선 기자

외국 노동자들 대원사 참배

(사)자비선행회 부설 한빛 외국인 노동자 센터(이사장 현창)는 4월 11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호남국제마라톤 대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가시켜 한국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네팔, 태국, 중국, 인도 등 4개국 노동자 30여명과 자원봉사자가 5km 코스에 참가해 전원 완주했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라톤 대회 참가후 보성 대원사를 방문해 참선, 전통무예 수백치기, 인도음악가 박양희씨의 공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 전통사찰과 문화체험을 했다. 이준엽 기자

경주 남산 마라톤 코스 변경

5월 29일 열린 예정인 제2회 경주남산 산길 마라톤대회의 코스가 남산과 경주 왕건문화재를 함께 체험하는 코스로 변경됐다.

주최측인 대구·경북 조계종 5개 교구 본시는 4월 11일 경주 남산 산길마라톤 대회로 인해 경주남산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경주 시민·문화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산산길을 걷는 코스로 결정했다. www.buddhamarathon.com



부산 범어사는 5월부터 참선전문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존에 열린 불교문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미리 적용한 참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



"인간愛·역사 의식 되새기자"

대흥사 서산대사 탄신대제...글쓰기 대회 등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서산대사 탄신 485주년을 맞아 지난 4월 8일 보살수계식,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서산대사 탄신대제는 천운(조계종 원로 의원), 보선(대흥사 회주), 암도(조계종 前 교원장), 명공(백양사 주지), 여연(일지암 주지)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박희연 해남군수, 정진석 해남군의회 의장, 지역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흥사 경내에 자리한 표충사(表忠祠)에서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표충사에 봉안된 서산, 유정, 처영 스님의 영정에 향과 차, 꽃을 올리고 나리를 지킨 의승장과 승군들의 뜻을 기렸다. 이어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생명이 부처이며, 가족과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상사가 수행이며 그 지리가 극락정토"라며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서산대사의 인간사랑이자 역사정신의 구현이

다"고 강조했다. 탄신대제에 앞서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1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문화행사로 해남관내소속 30여개 초·중·고교에 재학생인 학생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해남=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0일 오후 6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기념법회를 연다. 이날 기념식은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전 포교위원장) 초청법회와 가수 김중환씨를 비롯한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펼쳐진다. 이준엽 기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광주 불일청년회, 경로잔치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이미향)는 4월 10일 원각사 경내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는 한방 무료진료와 문화공연, 다과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정치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년들이 해마다 어르신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무료 건강검진을 펼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원각사와 법당에서 진행된 무료진료에는 대동한방병원과 천원당한의원에서 의료진 10여명이 나와 노인성질환을 검진하고 침술, 물리치료 등을 펼쳤다.

또한 원각사 마당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원각사 합창단, 하늘광 풍물패 등의 공연과 어르신 장기자랑이 열렸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에게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뒷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중환병원의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복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최재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팔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킴이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도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물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수신통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영정이나 국자의 경사가 있음에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통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목재를 방지하는 효료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제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 등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오가피를 제한하였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만을 생산합니다.

오직 900개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오가피에서도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선배영국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분수치나 수신통오가피와 허위의 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형용 교수가 직접 제작된 분장다원을 드립니다.